

돈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글 | 박철주

그림 | 지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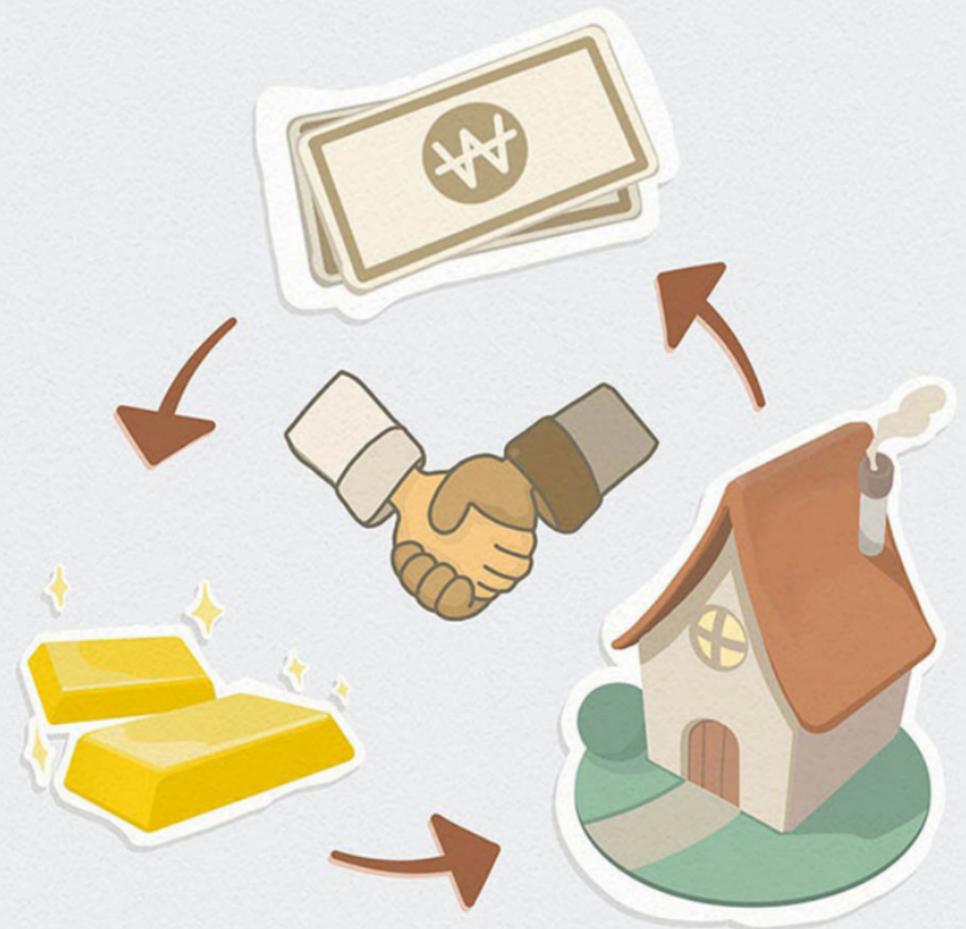
글 | 박철주

그림 | 지동환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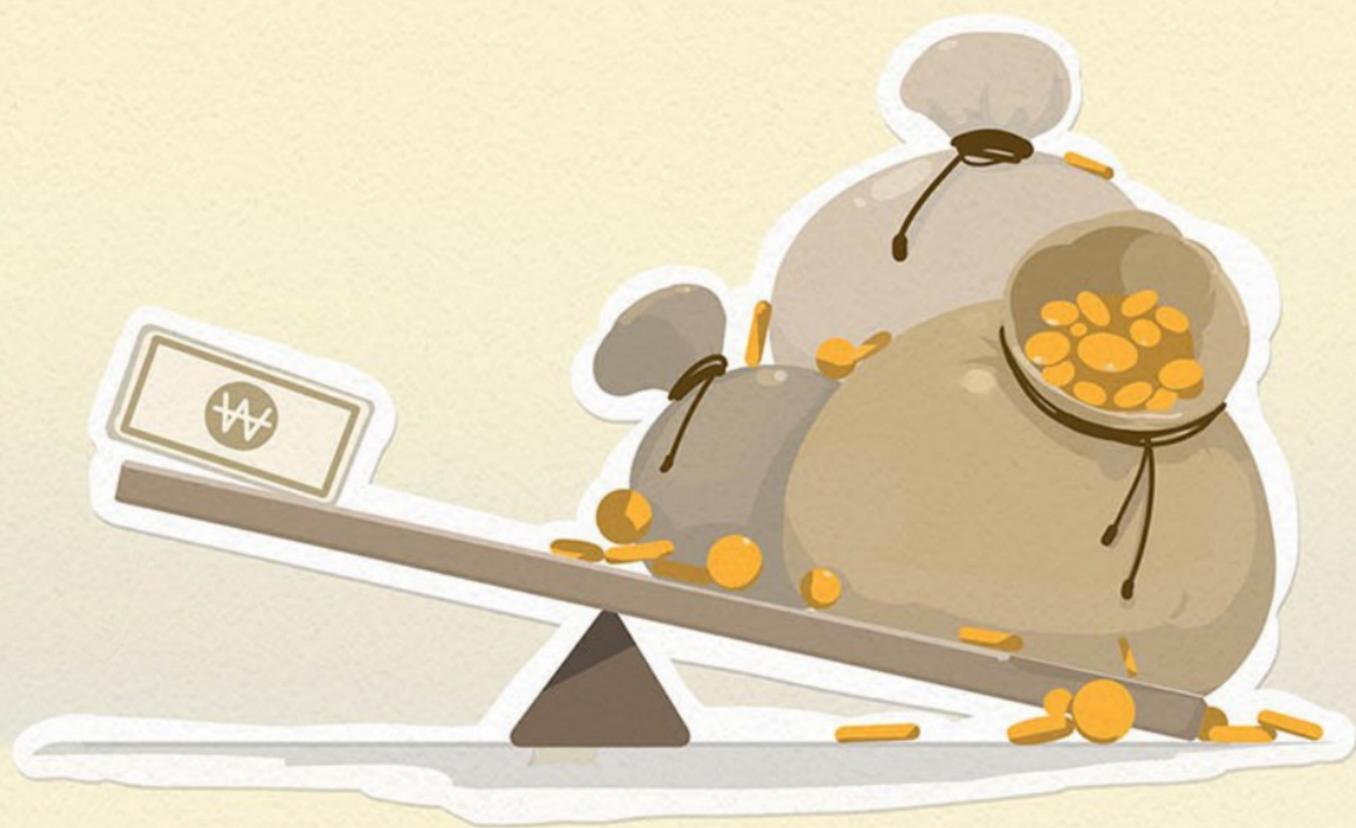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사용해요. 돈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돈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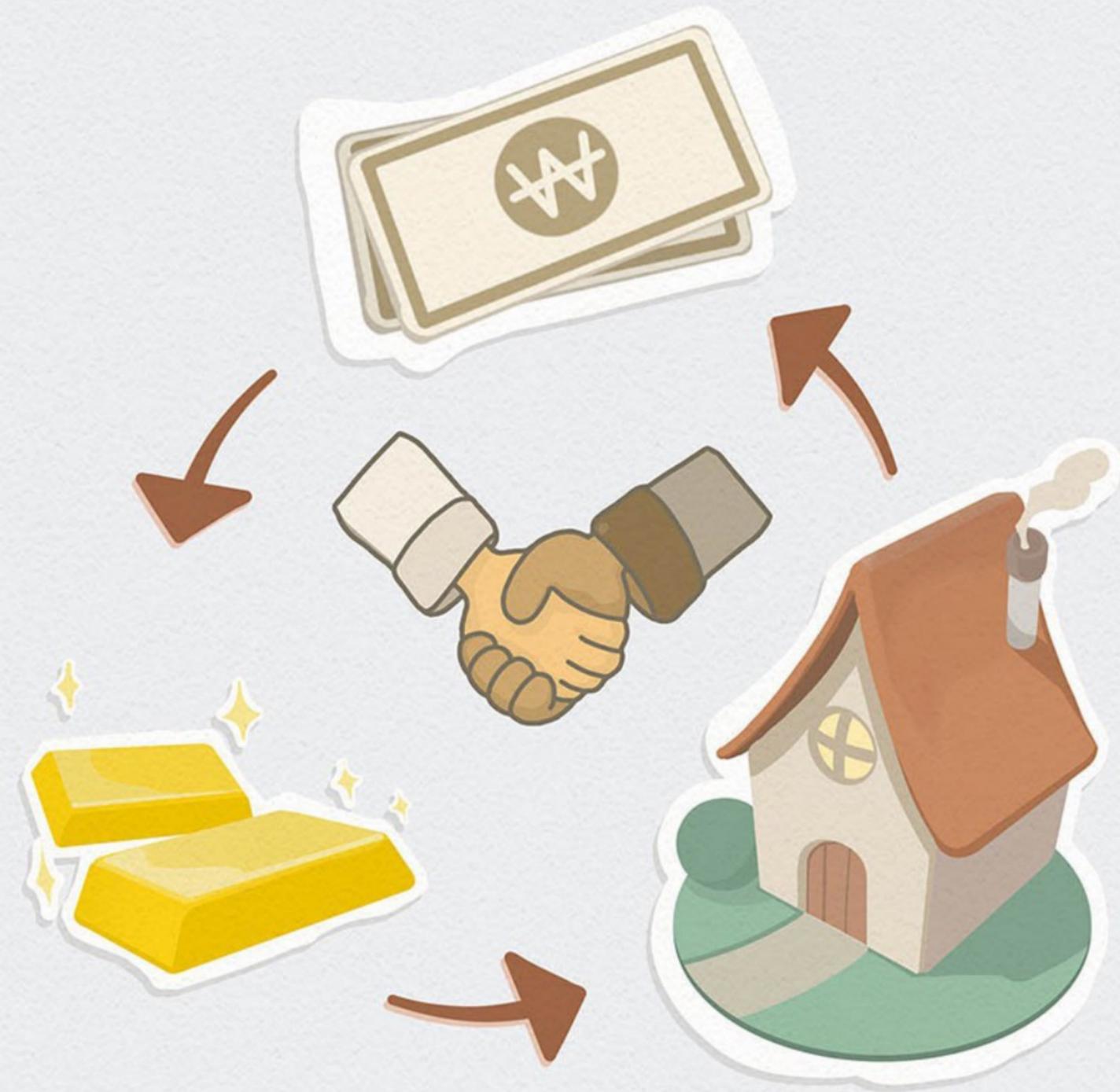
아주 먼 옛날에는 사과가 먹고
싶으면 직접 사과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 자기가 가진 물건과
바꾸었어요. 내게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바꿀 물건을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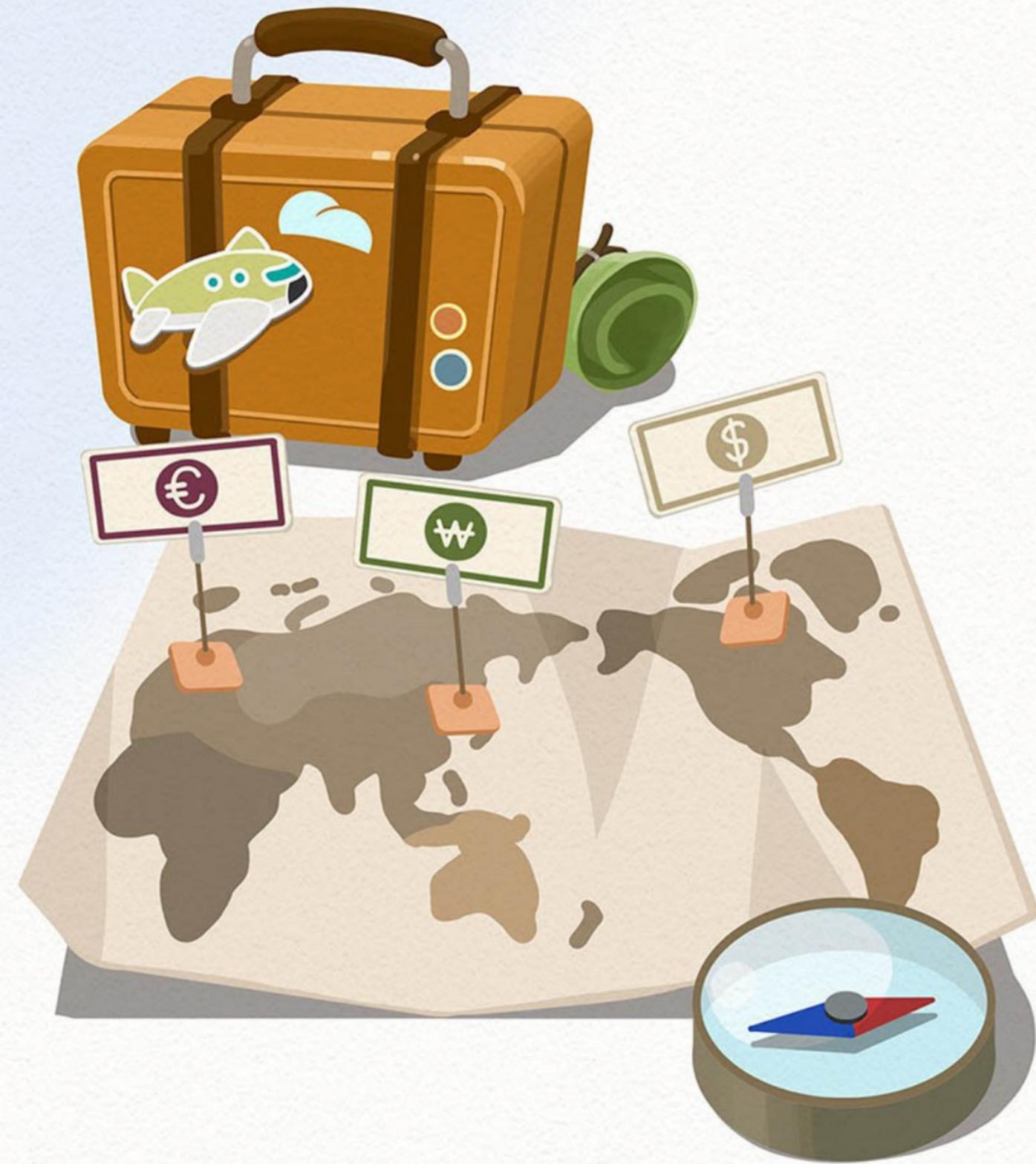
그래서 조개껍데기, 소금, 쌀처럼 가지고 다니기 편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했어요. 그것도 불편해서 금, 은, 구리처럼 변하지 않는 금속 조각의 무게를 재어 사용했지요. 무게를 재는 것이 정확치 않아서 금속으로 무게와 모양이 같은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주화를 아주 많이 들고 다녀야
해서 무거웠어요. 그래서 가벼운
종이로 지폐를 만들게 되었어요.
지폐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폐와 동전 같은 화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줍니다. 또 물건의 값을 정할 수 있게 해 주고,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주지요.



돈은 나라마다 모양도, 세는 단위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유럽 연합은 유로 이렇게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 가는 나라의 돈으로 바꿔 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요.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은 일반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돈을 찾은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돈이 찢어지고 헐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가요.



지폐나 동전도 사용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해요.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화폐도 생겨났지요.



조개껍질이나 소금에서 금속으로, 다음에는 무게랑 모양이 정해진 주화로, 지폐로, 신용카드로... 돈은 계속 변화해 왔어요. 앞으로도 돈은 계속 변화할 거예요. 미래에는 어떤 돈을 사용하게 될까요?

“돈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